

 교육부		<h1>보도자료</h1> <p>2021. 3. 12.(금) 배포</p>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	2021. 3. 15.(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 14.(일) 09: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사	최보영 류승의 황예슬 문평길 반정민	(☎ 044-203-6799) (☎ 044-203-6798) (☎ 044-203-6782) (☎ 044-203-6794) (☎ 044-203-6786)

2021년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 -

- ◆ 전년(123억 원) 대비 약 2배(236억 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전 세계 43개국 1,800개교의 한국어교육 지원 목표
- ◆ 13억 인구의 인도,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인 러시아, 잠재력이 큰 베트남에서 한국어 채택 및 교육과정이 승인됨에 따라 신남·북방 지역 집중 지원
- ◆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한 초·중급 교재 및 맞춤형 교재 개발 착수
- ◆ 현지 우수대학 내 교원양성과정 개설 확대(14개 과정)로 우수 교원 확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미국 현지학교에 한국어반이 최초로 개설(1999년)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 한국교육에 대한 관심과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교육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해외 한국어교육은 한국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친한·지한 인재를 양성하는 첫걸음이며, 국가 간 교육·문화 협력의 핵심적 기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높은 수요**로 한국어교육이 확대되었고, 2021년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23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0년 한국어교육 성과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

- 작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도 **라오스** 시범교육 착수(9월) 등 전년(30개국) 대비 **9개국***이 한국어를 신규 채택하여 전체 **39개국 1,699개교** 약 **16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년 신규 : 과테말라, 덴마크, 라트비아, 르완다, 스리랑카, 아프간, 체코, 터키, 라오스

- 특히, 13억 인구의 **인도**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2020.7.), **러시아**에서 **교육과정을 개발·승인**(2020.10.)하였으며, **신남방**의 핵심 동반자이자 약 1억 명의 인구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베트남**은 2016년에 시범교육을 시작하여 작년(2020.3.)에 **제2외국어로 승인**한 데 이어, 올해 2월 초(2021.2.)에는 **제1외국어***로 채택하였다.

-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를 영어, 중국어 등 6개 선진국의 언어와 대등하게 교육할 수 있고 대학입학시험의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 현지 한국어교원 연수를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교원 양성과정은 현지 우수대학 내에서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한국어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지인 교원 양성과정**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대학과 현지 대학**이 협력하여 **4개국에서 7개 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

* 베트남(2개), 말레이시아(1개), 러시아(2개), 우크라이나(2개)

- **코로나19**로 외국인의 현지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파견 국가를 다변화**하여 **교원 파견***을 지속하였다.

* 2019년 4개국(56명) → 2020년 6개국(70명)

- 한국어교육 수요가 높은 **신남방** 지역에 현지 정부와 협의하여 **한국교육원**을 2개 원(말레이시아, 하노이한국교육원) 신설하였다.
- 또한,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중점 한국교육원**(신남방 2개, 신북방 2개)을 지정·운영하고 **한국어교육 전문관**(4명)을 파견하여 기반을 구축하였다.
-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법」에 시험 근거를 마련하고,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인터넷 기반 시험(IBT)** 전환, 말하기 평가와 **문제은행 도입** 등 시험 개선을 시작하였다.

2021년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 체계화·전문화로 수준 제고

- 2021년은 문체부·외교부와 **협업예산**을 통해 작년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236억 원**을 확보·지원하며, 특히 전략적 협력 대상이자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2021~2022년까지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 목표**와 올해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

- 2022년까지 45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반 개설을 목표로 2021년에는 43개국 1,800개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할 계획이다.
- 올해는 한국어 신규 채택을 희망하는 **요르단, 벨기에, 에콰도르** 등 3개국과 **라오스·캄보디아** 등 시범교육* 국가를 포함하여 현지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 ※ 캄보디아 시범교육 : 중등학교 3개교(한국어교육 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20.11.)
- 또한, 현지 교육당국(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현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한국어반 개설과 제2외국어 채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제 통용성을 갖춘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 이번에 개발한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은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을 준용한 것으로 학습자의 숙달 정도에 따라 재구조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총 8단계(초급 4등급, 중급 4등급)로 세분화되어 있다.
 -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2020.9.~2021.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개발한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초·중급 교재를 개발하고, 자체 교육과정을 가진 국가 중에서는 현지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현지 맞춤형 교과서와 교재 개발을 지원한다.
 - 감염병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해 디지털 교재도 개발하여 온라인 학습도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문화·역사 이해 제고와 학습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보조교재도 함께 개발·보급한다.

◇ 한국어교육 전문성 제고

- 2022년까지 현지 교원양성과정 24개, 교원 파견 200명, 연수는 5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2021년에 14개 교원양성과정, 파견 132명, 연수는 4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작년에 이어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원(강사)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과 현지 대학을 연계하여 올해는 신남방 지역 7개*, 신북방 지역 7개** 현지 대학 내 학위 또는 비학위(단기) 양성과정 개설을 지원한다.
 - *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6개국) 7개 과정 내외
 - **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5개국) 7개 과정 내외
 - 특히, 핵심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GKS)과 연계하여 현지 국가 교원의 국내대학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 ※ '21년 대학원 GKS사업에서 신남·북방 지역 '한국어교원' 유형으로 30명 별도 선발

- 올해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132명의 원어민 한국어 교원*를 파견하고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남방·신북방 등 총 4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통합연수, 현지 맞춤 연수 등을 통해 현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국어교원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한국어교육 기반 강화

- 한국어교육의 거점으로서 최근(2020.12.) 신설된 말레이시아·하노이 한국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점교육원을 통해 인접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권역별 한국어교육 협력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중점교육원 : 태국, 호치민, 로스토프나도누, 우즈베키스탄

- 작년에 이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응시 기회 확대와 평가 체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개선을 추진하고 법적 기반도 완비한다.

- 현행 지필고사 방식을 개선하여 2023년에 인터넷 기반 시험 (IBT)으로 전면 시행, 2022년 말하기평가 시행 및 문제은행 출제 방식 도입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 제재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승인하는 등 코로나19에도 한국어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수요가 높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며, 희망하는 모든 국가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현지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1년 추진 주요내용

2. 2020년 기준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



붙임 1

2021년 추진 주요내용

비전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한류 확산 및 상생 기반 구축

**추진
방향**

현지 한국어교육 여건에 기반하여 **현지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수요가 많은 **신남방·신북방** 중심으로 지원 확대
관계부처(문체부, 외교부)와 협력하여 한국어교육 시너지 창출

목표

구 분		'19	'20	'21	⇒	'22
한국어반 확대		30개국 1,635개교	39개국 1,669개교	43개국 1,800개교		45개국 2,000개교
교원 확보	한국인 교원 파견	56명	70명	132명		200명
	현지교원 양성	-	7개 과정	14개 과정	⇒	24개 과정
	교원 연수	-	300여명	400명		500명
교과서·교재 개발		-	-	범용 및 보조교재 맞춤형 교재	⇒	맞춤형 교재, 보조교재

**세부
추진
과제**

한국어교육의 기회 확대	①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확대 ② 교육과정, 교재 개발·보급 확대
한국어교육의 수준 제고	③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 및 처우 개선 ④ 현지 한국어교원(강사) 양성 체계 구축 ⑤ 현지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한국어교육 확산의 기반 강화	⑥ 한국어교육 거점으로서 한국교육원 확충 및 역할 강화 ⑦ 한국어능력시험 평가체계 개선 및 법적 기반 완비 ⑧ 한국어교육 저변 확대 ⑨ 현지 한국어 교육제도 연구
한국어교육의 협력체계 강화	⑩ 한국어교육 협력 기반 조성 ⑪ 전문가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전 체 : 39개국 1,669개교 약 16만 명

- 신남방 : 7개국 266개교 5.5만 명
- 신북방 : 9개국 187개교 2.5만 명

(2020.12.31. 기준)

지역	국가별	2018년도(28개국)		2019년도(30개국)		2020년도(39개국)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전 체		1,495	136,866	1,635	145,309	1,669	159,864
신남방	태 국	119	37,401	138	38,109	165	45,905
	인도네시아	39	4,677	41	5,141	44	3,480
	베트남	7	1,014	14	1,865	12	1,965
	필리핀	10	591	26	2,044	18	1,990
	인도	-	-	14	493	13	434
	말레이시아	10	891	10	923	11	1,275
	라오스	-	-	-	-	3	100
신남방 계		185	44,574	243	48,575	266	55,149
신북방	몽골	24	4,127	28	4,129	24	4,614
	키르기스스탄	61	5,850	64	5,104	65	4,451
	카자흐스탄	13	496	21	799	21	616
	우즈베키스탄	37	10,470	37	10,055	29	7,844
	타지키스탄	2	221	2	269	2	219
	러시아	44	5,541	42	5,623	30	6,099
	우크라이나	8	821	11	1,031	12	795
	벨라루스	2	45	2	36	3	55
	투르크메니스탄	-	-	1	101	1	189
신북방 계		191	72,145	208	75,621	187	24,882